



numbers
vol. 250

한국인은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종교가 내 삶에 영향 미친다’,
개신교인이 타종교 대비 크게 높아!**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나이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
- ② 한국교회 유튜브 순위
- ③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넘버즈 칼럼]

올림픽과 그리스도인

2024. 7. 30.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종교가 내 삶에 영향 미친다’, 개신교인이 타종교 대비 크게 높아!

우리나라 인구 중 무종교인 비율은 6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무종교인 비율은 더 높아 무종교인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탈종교화 시대에 한국인은 종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최근에 발표된 한국인의 전반적 종교 인식 조사 자료를 통해 종교인과 무종교인의 종교 인식, 일반 국민의 종교 관련 인식을 살펴본다.

주요 결과를 보면 종교를 가지게 된 계기로 개신교인, 불교인, 가톨릭인 모두 부모님의 영향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아 가족 종교화 현상이 두드러졌으며, 종교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은 개신교인이 79%로 타종교 대비 압도적으로 높았다. 무종교인이 향후 종교 가질 의향은 19%로 탈종교화가 진행중임을 나타냈지만, 한국 사회에서 종교가 미치는 영향력에 관해서는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인정하고 있었다.

*넘버즈 224호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1

[종교인의 종교 인식] 가족 종교화 현상, 개신교가 가장 강해!

- 현재 종교를 가진 자들에게 종교를 갖게 된 계기에 대해 물었다. ‘부모님의 영향’이 55%로 2순위인 ‘어려울 때 힘 됨(22%)’보다 크게 높았는데, 개신교인, 불교인, 가톨릭인 모두 ‘부모님의 영향’을 1위로 꼽아 가족 종교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2순위부터는 종교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개신교인의 경우 ‘어려울 때 힘이 됨(27%)’을, 불교인은 ‘종교적인 경건함 이 느껴져서(26%)’, 가톨릭인은 ‘타종교에 비해 이미지가 좋아서(34%)’를 각각 2위로 응답했다.

[표] 종교를 믿게 된 계기 (종교인, 상위 4위,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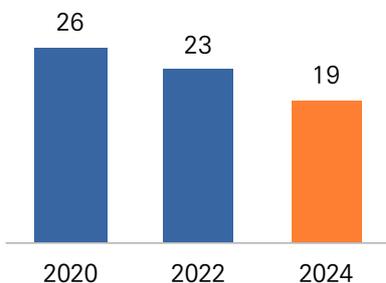
| | 1위 | 2위 | 3위 | 4위 |
|------|----------------------------|----------------------------|-------------------|---------------------------|
| 전체 | 부모님의 영향, 모태 신앙 (55%) | 어려울 때 힘이 됨 (22%) | 가족/지인 권유 (20%) | 종교 교리/사상 (19%) |
| 개신교인 | 부모님의 영향, 모태 신앙 (62%) | 어려울 때 힘이 됨 (27%) | 가족/지인 권유 (24%) | 종교 교리/사상 (16%) |
| 불교인 | 부모님의 영향, 모태 신앙 (53%) | 종교적인 경건함 (26%) | 종교 교리/사상 (22%) | 타종교와 배타적이지 않음 (22%) |
| 가톨릭인 | 부모님의 영향, 모태 신앙 (38%) | 타종교에 비해 이미지 좋음 (34%) | 종교적인 경건함 (32%) | 깨끗하고 청렴함 (29%) |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4 종교(인)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 조사보고서', 2024.05.17. (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13.~05.17.)

현재 개신교인 중 타종교에서 옮겨온 비율 10%

-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개종 경험은 어느 정도일까? 2024년 기준 개종 경험은 19%로 2020년 26% 대비 크게 낮아졌다.
- 현재 3대 종교인 중 과거에 다른 종교를 믿어 본 경험률은 ‘개신교’가 10%로 ‘불교(22%)’, ‘가톨릭(34%)’보다 크게 낮았다.

[그림] 종교 개종 경험 (종교인, %)



[표] 현재 종교 있는 자의 과거 종교 비율 (종교인,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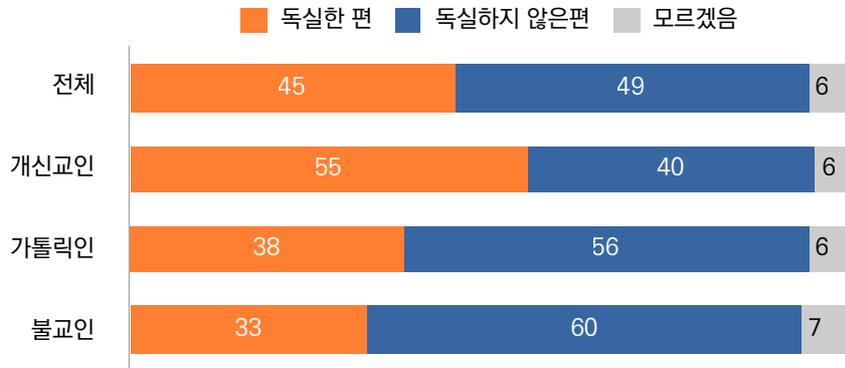
| 현재 종교 | 과거 종교 | 비율 |
|-------|-------|----|
| 개신교 | 개신교 | 90 |
| | 타종교 | 10 |
| 불교 | 불교 | 78 |
| | 타종교 | 22 |
| 가톨릭 | 가톨릭 | 66 |
| | 타종교 | 34 |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4 종교(인)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 조사보고서', 2024.05.17. (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13.~05.17.)

종교에 대한 독실함, 개신교인이 다른 종교인보다 크게 높아!

- 종교를 가진 자들은 평소 본인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할까? 절반 가까이가 평소 본인의 믿음 정도를 ‘독실한 편’이라고 평가했고, 타 종교 대비 개신교인의 ‘독실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림] 본인 종교에 대한 독실함 정도 (종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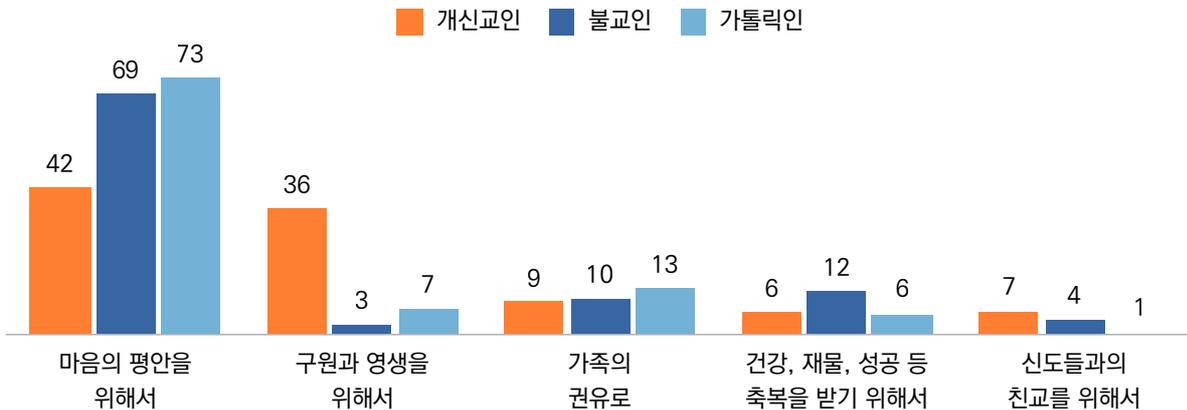


※출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4 종교(인)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 조사보고서', 2024.05.17. (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13.~05.17.)

종교인의 신앙생활 이유, '마음의 평안'!

- 이번에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23년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자료를 통해 종교별 신앙생활 이유를 살펴본다. 종교인들의 신앙생활 이유에 대해 묻은 결과, 3대 종교인 모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가 가장 높았는데, 그중 가톨릭인이 선택한 비율은 73%로 다른 종교 대비 가장 높았다.
-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를 꼽은 비율은 개신교인이 36%로 다른 종교 대비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림] 종교별 신앙생활의 이유 (종교인, %)



※출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23.06.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비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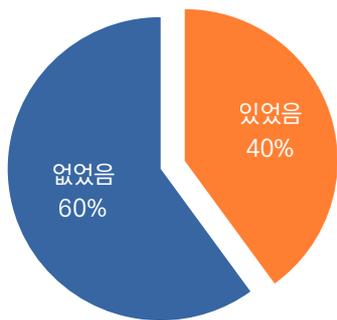
02

[무종교인의 종교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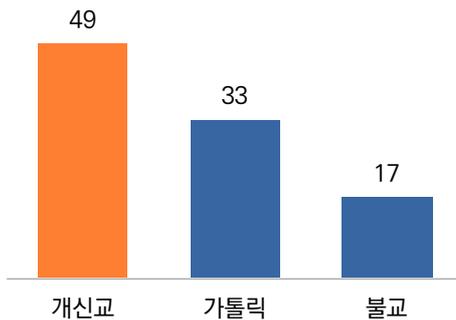
과거 종교 있었던 무종교인 절반은 과거 개신교인!

- 현재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과거 종교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현재 무종교인 가운데 과거에 종교를 믿었던 사람은 40%였다. 즉 현재 무종교인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은 과거에 종교를 믿었던 사람이었음을 의미하는 한편 한국사회 탈종교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 현재 무종교인 중 과거 믿었던 종교가 있는 경우 '개신교'라고 응답한 비율이 49%, '가톨릭' 33%, '불교' 17%였다. 이는 과거 개신교 신자의 이탈률이 특히 높음을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그림] 과거 종교 여부 (무종교인)



[그림] 과거 믿었던 종교 (무종교인, 상위 3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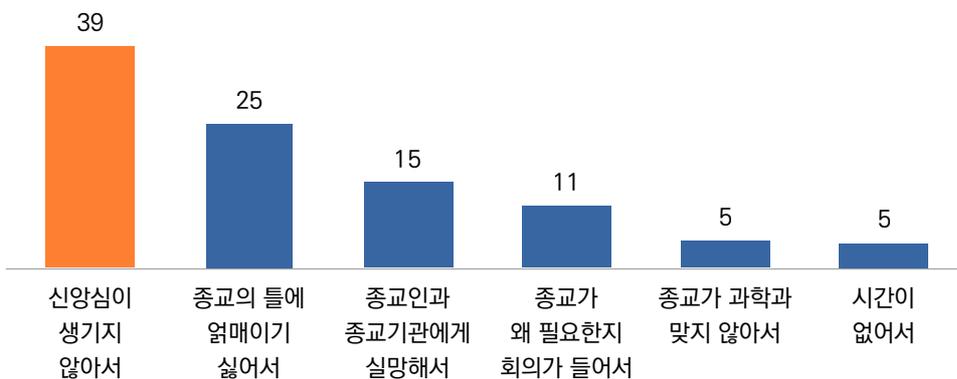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인식 조사', 2024.06.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20.~05.27.)

무종교인이 종교 믿지 않는 이유,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커!

- 현재 종교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은 결과, '신앙심이 생기지 않아서'가 39%로 종교에 대한 무관심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이어 '종교의 틀에 얽매이기 싫어서' 25%, '종교인과 종교기관에 실망해서' 15% 등의 순이었다.
- '종교의 틀에 얽매이기 싫어서', '종교가 왜 필요한지 회의가 들어서', '종교가 과학과 맞지 않아서' 등의 이유는 종교가 현대인의 생활과 사고방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셈이다.

[그림] 현재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 (무종교인, 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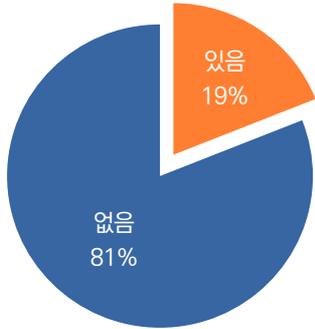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인식 조사', 2024.06.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20.~0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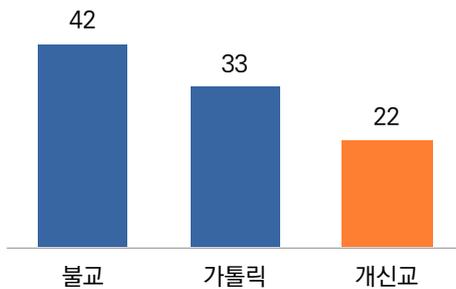
무종교인 향후 종교가질 의향 21%!

- 이번에는 현재 무종교인들에게 향후 종교를 가질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있음'이라 응답한 비율은 19%로 5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 이들이 '향후 믿고 싶은 종교'로는 '불교'가 42%로 가장 높았고, 개신교는 3개 종교 중 가장 낮은 22%로 불교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그림] 향후 종교 가질 의향 (무종교인)



[그림] 향후 믿고 싶은 종교 (향후 종교 가질 의향 있는 무종교인, 상위 3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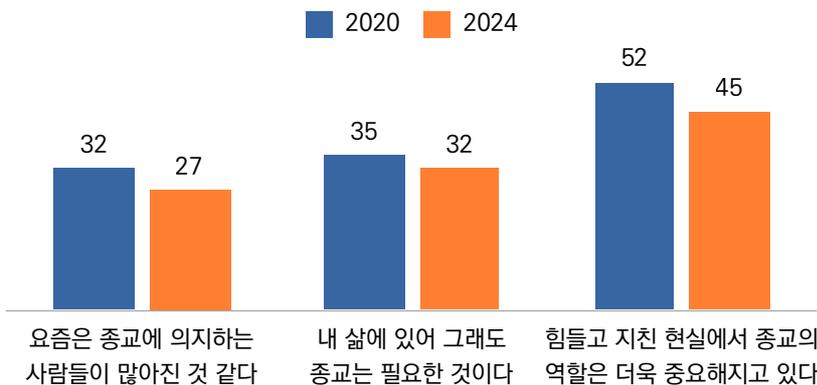
※출처: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인의 종교 인식 조사', 2024.06.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20.~05.27.)

03

[일반 국민의 종교 인식] 한국사회, 탈종교화 현상 계속 진행!

- 우리 국민은 종교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을까? '요즘은 종교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와 '내 삶에 있어 그래도 종교는 필요한 것이다'의 동의율은 2024년 각각 27%와 32%로 나타났는데 이 비율은 4년 전 대비 약간씩 감소했다.
- '힘들고 지친 현실에서 종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의 동의율 역시 2020년 52% 대비 감소한 45%로 나타나, 탈종교화 시대에 종교의 필요성과 역할 인식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였다.

[그림] 종교의 필요성과 역할 인식 (일반 국민,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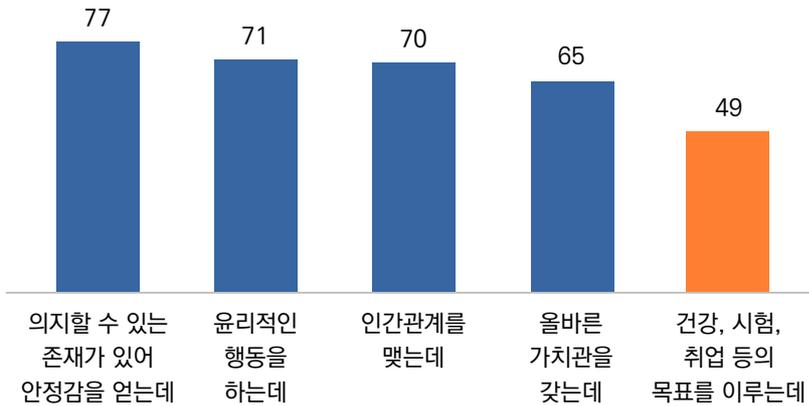


※출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4 종교(인) 및 종교인 과제 관련 인식 조사보고서', 2024.05.17. (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13.~05.17.)

우리 국민 절반, '종교가 개인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된다'

-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효능감은 무엇일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 안정감을 얻는데' 종교가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4명 중 3명 이상(77%)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는데' 도움 된다는 인식도 70%대로 높은 편이었다.
- '건강, 시험, 취업 등의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49%로 우리 국민 절반이 개인의 목표를 이루는 데 종교가 도움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종교의 효능감 인식(일반 국민, '매우+약간 도움 된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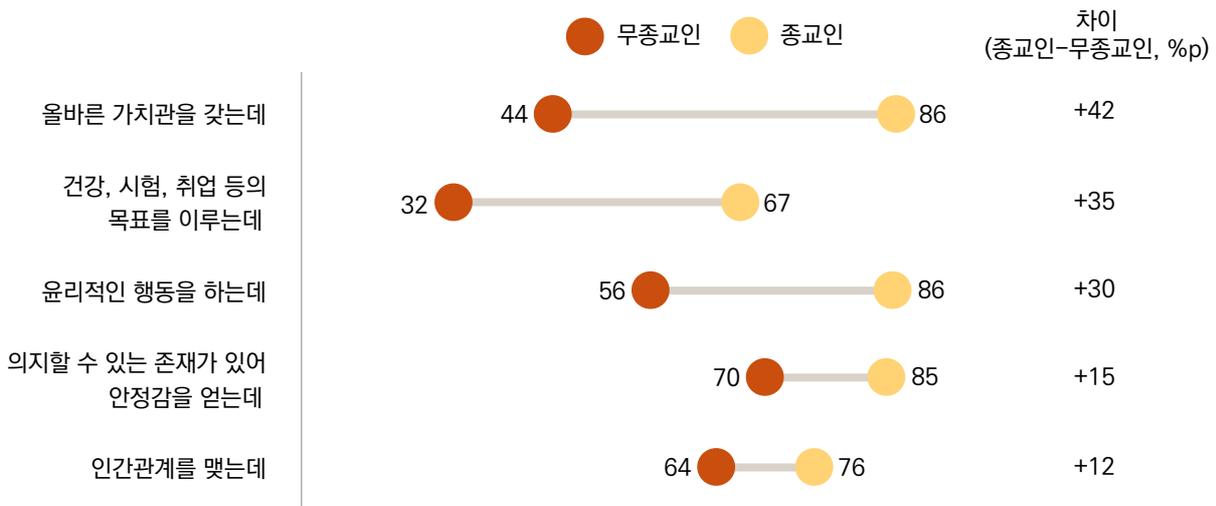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3 종교인식 조사, 종교의 효능감 및 영향력 평가', 2023.12.27. (전국 만18세 이상남녀 1,000명, 웹조사, 2023.11.04.-11.27.)

*4점 척도

상당수의 무종교인, 종교 믿지 않지만 종교 효능감은 인정!

- 이번에는 앞에서의 종교적 효능감을 종교인과 무종교인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 안정감을 얻는데'의 경우 무종교인도 70%가 도움 된다고 인식해 상당수의 무종교인이 종교의 효능감을 인정하고 있었다.
- 다른 항목들도 대체로 무종교인이 40~60%대의 높은 종교의 효능감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림] 종교 여부별 종교의 효능감 인식(일반 국민, '매우+약간 도움 된다' 비율*, %)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3 종교인식 조사, 종교의 효능감 및 영향력 평가', 2023.12.27. (전국 만18세 이상남녀 1,000명, 웹조사, 2023.11.04.-11.27.)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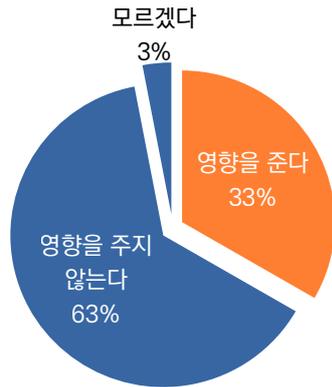
04

[종교의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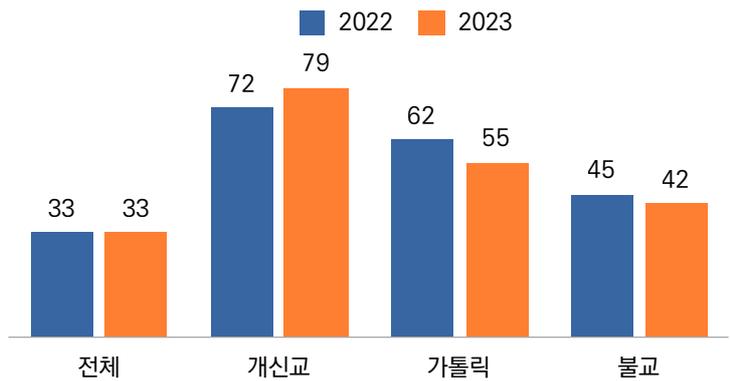
'종교가 내 삶에 영향 미친다', 개신교인이 타종교 대비 크게 높아

- 종교는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국민 3명 중 1명만이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종교별로 살펴보면 개신교인은 2023년 79%로 전년(72%) 대비 개인 삶에 있어 종교의 영향력이 증가한 데 반해 가톨릭, 불교는 감소한 특징을 보였다.
- 종교별로 살펴보면 개신교인이 타종교보다 자신에 대한 종교의 영향력에 대해 압도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종교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 (일반 국민)



[그림] 종교별 종교가 내 삶에 미치는 영향* (일반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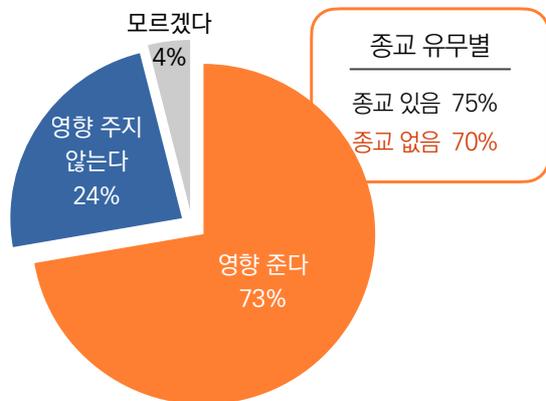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3 종교인식 조사, 종교의 효능감 및 영향력 평가', 2023.12.27. (전국 만18세 이상남녀 1,000명, 웹조사, 2023.11.04.~11.27.)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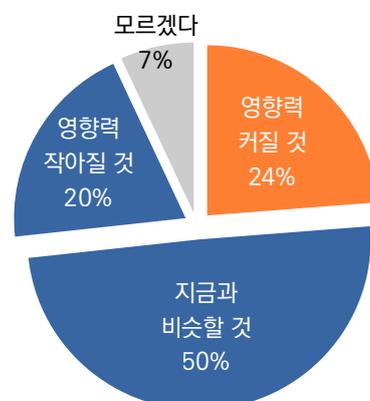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 '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 준다'!

- 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인식할까? '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준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73%로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종교의 사회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었다.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도 70%가 '영향 준다'로 응답해 종교의 사회 영향력에 있어서는 종교 유무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커질 것'이 24%로 '작아질 것(20%)'보다 다소 높았지만, 절반(50%)은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해, 전체적으로는 종교의 영향력이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컸다.

[그림] 종교의 한국 사회 영향* (일반 국민)



[그림]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 전망 (일반 국민)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3 종교인식 조사, 종교의 효능감 및 영향력 평가', 2023.12.27. (전국 만18세 이상남녀 1,000명, 웹조사, 2023.11.04.~11.27.)

*5점 척도

05

[종교의 역할]

우리 사회에서 기대하는 종교의 역할, '봉사'와 '약자 보호'!

- 종교가 우리 사회를 위해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다양한 봉사 활동의 주체(47%)'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강했고, 이어 '사회적 약자 보호(44%)',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32%)' 등의 순이었다.

[그림] 우리 사회 종교의 역할 (일반 국민, 중복응답,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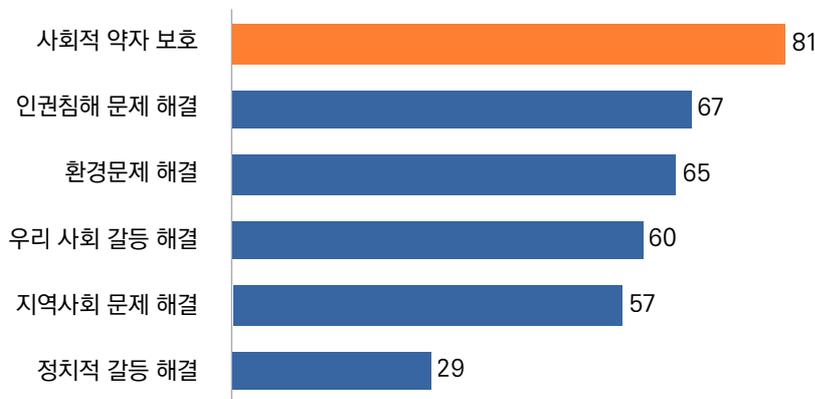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4 종교(인)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 조사보고서', 2024.05.17. (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13.~05.17.)

'성직자·종교 지도자, 사회적 약자 보호에 참여해야 한다' 81%

- 6가지 사회 문제를 제시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해야 하는지를 물은 결과, 국민 대부분(81%) 이 성직자·종교 지도자들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인권침해 문제 해결', '환경문제 해결', '우리 사회갈등 해결' 등에도 10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 대체로 종교 지도자의 적극적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었다.
- 다만, '정치적 갈등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29%에 그쳐 성직자·종교 지도자의 정치적 개입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그림] 성직자·종교 지도자의 사회 참여 인식 (일반 국민, '매우+약간 동의' 비율*, %)

성직자·종교 지도자들은 _____에 참여해야 한다.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2023 종교인식 조사, 종교의 효능감 및 영향력 평가', 2023.12.27. (전국 만18세 이상남녀 1,000명, 웹조사, 2023.11.04.~11.27.)

*4점 척도

이번호 요약

1. 종교인의 가족 종교화 현상 두드러져!

- 종교인이 종교를 가진 계기로는 '부모님의 영향(모태신앙)'이 55%로 2위인 '어려울 때 힘 됨(22%)'보다 크게 높았다.

2. 한국사회의 탈종교화 현상 계속 진행 중!

- 무종교인이 과거 종교를 가진 경험률은 40%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과거 믿었던 종교는 개신교가 49%로 가장 높았다.
- 무종교인이 향후 종교를 가질 의향은 19%에 불과했다.

3. 하지만 종교의 효능감과 역할 인정!

-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 안정감을 얻는데 종교가 도움 된다'에 우리 국민 77%가 동의했고 무종교인도 70% 동의했다.
- 우리 국민의 73%가 '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 준다'에 동의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기사] 1020 젊은층 “기독교가 저렇지 뭐”... 탈종교화 두드러져 (국민일보)
- ▶ [자료] 무종교인의 종교의식 (넘버즈 237호)
- ▶ [칼럼] 교회의 바람직한 사회 참여 (정재영 교수, 데일리굿뉴스)

관련 성경 구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른다 (갈라디아서 6:9)

목회 적용점

탈종교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다. 탈종교화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염두에 뒀어야 할까? 영적 영역은 사회가 제공해 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최근 개신교 안에서도 영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교회는 이러한 움직임이 공동체 안에서 충족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종교가 주는 실질적 효능감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

조사결과 종교를 믿지 않는 무종교인들도 종교가 안정감을 얻는데,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데, 인간관계를 맺는데,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데 효능감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심지어는 종교가 건강/시험/취업 등의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된다는 인식이 무종교인의 32%나 되고 있다.

교회로 전환해보자. 기독교를 믿는 자라면 종교의 효능감을 교회생활 하면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할 것이다. 교회 공동체가 교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영적 또는 정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의 욕구가 점점 세분화되므로 교인들의 생애주기별로 욕구가 다 다르다. 이를 교회 지도자들이 간파해 각 세대별 욕구에 맞는 교육 등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나이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
2. 한국교회 유튜브 순위
3.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넘버즈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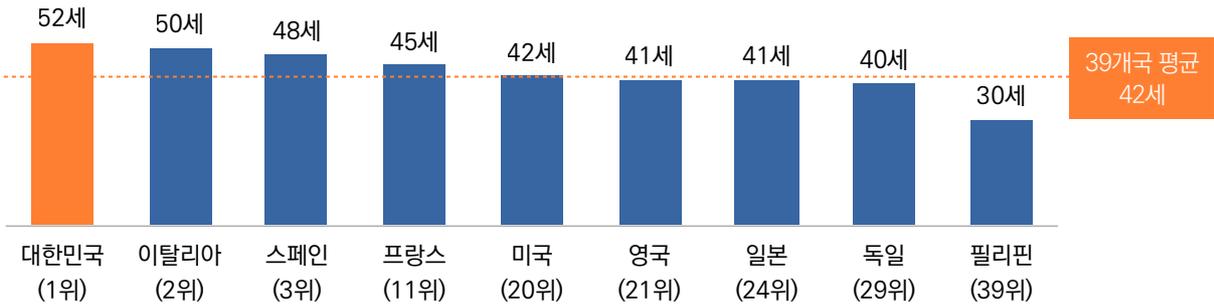
올림픽과 그리스도인



[나이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 한국인, 세계 39개국 국민 중 가장 젊게 살아!

- 세계인이 느끼는 늙음과 젊음의 경계 나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국갤럽이 글로벌 조사 네트워크 WIN과 함께 한국을 포함한 39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나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사람들이 스스로 더 이상 젊지 않다고 느끼는 나이’가 몇 세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한국은 평균 52세로 조사국 중 가장 높았다. 이는 39개국 평균(42세)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조사국 평균과 비슷한 ‘미국(42세)’, ‘일본(41세)’에 비해 아직 젊다고 느끼는 기간이 10년가량 더 긴 셈이다. 그만큼 한국인이 다른나라 국민보다 더 젊게 산다는 의미이다.

[그림] 사람들이 스스로 더 이상 젊지 않다고 느끼는 나이 인식 (국가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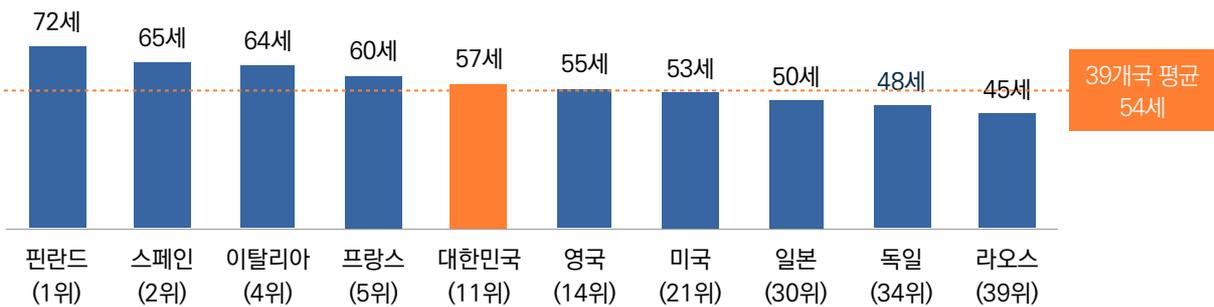


※출처 : 한국갤럽, '노인과 젊음, 나이에 대한 인식-WIN World Survey 다국가 조사', 2024.07.17. (세계 조사: 39개국 성인 총 33,866명 전화/온라인/면접조사, 주제별 참여국 상이, 2023.12.~2024.02./ 한국 조사: 전국 만 19~79세 1,029명, 모바일조사, 2024.01.24.~30.)

한국, 스스로 늙었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나이는 57세!

- 이번에는 ‘사람들이 스스로 늙었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나이’를 물었다. 39개국 성인 평균은 54세였고, 한국은 39개국 중 상위권(11위)인 57세로 나타났다.
- ‘더 이상 젊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이(52세)’와 ‘늙었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나이(57세)’에 해당하는 50대 초중반의 한국 성인은 젊음을 보내고 늙음을 받아들이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림] 사람들이 스스로 늙었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나이 (국가별 평균)



※출처 : 한국갤럽, '노인과 젊음, 나이에 대한 인식-WIN World Survey 다국가 조사', 2024.07.17. (세계 조사: 39개국 성인 총 33,866명 전화/온라인/면접조사, 주제별 참여국 상이, 2023.12.~2024.02./ 한국 조사: 전국 만 19~79세 1,029명, 모바일조사, 2024.01.2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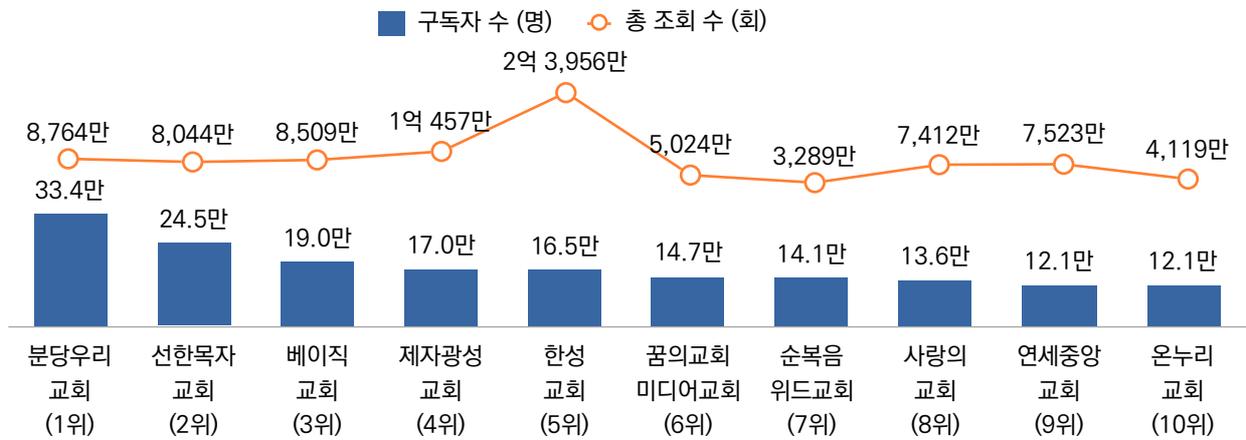


[한국교회 유튜브 순위]

한국교회 유튜브 구독자 수 1위, '분당우리교회'!

-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내 온라인 예배 등 온라인 사역이 자리 잡았고, 현재까지 많은 교회에서 온라인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활용 매체가 유튜브이다. 한국교회의 온라인 사역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최근 「복음과 선교」(한국의 온라인 교회와 사역에 대한 선교학적 성찰, 세계교회성장연구소 홍영기 소장)에 관련 보고서가 발표되어 이를 살펴본다.
-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한국교회의 온라인 사역 순위를 선정했는데 유튜브 구독자 수 기준 1위는 '분당우리교회'(33.4만 명)였고, 다음으로 '선한목자교회', '베이직교회' 등의 순이었다. 총 조회 수 기준으로 보면 '한성교회'가 2.4억 회를 넘어서며 가장 많았고, 이어 '제자광성교회'가 1억 457만 회로 2위에 올랐다.

[그림] 한국교회 유튜브 순위* (구독자 수 기준 상위 10위)



※출처 : 복음과 선교 제66집, '한국의 온라인 교회와 사역에 대한 선교학적 성찰'(홍영기) 논문, 2024.06.

*관련 기사 : 국민일보, '접속하라, 신앙 공동체가 되리니...분당우리교회 구독자수 1위, 2024.07.12.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20682008&code=23111111&sid1=mis>)

*2024년 5월 21일 기준

한국교회 유튜브 인기 영상 상위 top3, '찬양 콘텐츠'!

- 이번에는 교회들의 유튜브 영상 콘텐츠 조회 수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상위 1~3위가 모두 찬양 콘텐츠였는데 1위는 '한성교회' 김윤진 간사의 찬양 영상으로 누적 조회 수가 1,825만 회에 달했고, '사랑의교회'와 '연세중앙교회'의 찬양이 200만 회 이상으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표] 한국교회 유튜브 인기 영상 조회 수 순위* (상위 10위)

| 순위 | 교회명 | 인기 영상 조회 수 | 종류 | 인기 영상 내용 (클릭 시 이동) |
|----|------------|------------|----|--|
| 1 | 한성교회 | 1,825만 회 | 찬양 | 아무것도 두려워말라 외-김윤진 간사 |
| 2 | 사랑의교회 | 277만 회 | 찬양 | 송축해 내 영혼-할렐루야 찬양대 |
| 3 | 연세중앙교회 | 202만 회 | 찬양 | 나의 하나님 외-주일예배 찬양 |
| 4 | 순복음위드교회 | 134만 회 | 설교 | 조용기 목사님과 1시간 방언 통성기도 |
| 5 | 꿈의교회 미디어교회 | 105만 회 | 설교 |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설교-김학중 목사 |
| 6 | 제자광성교회 | 74만 회 | 설교 | 나의 쓰뿌리를 제하시는 하나님-박한수 목사 |
| 7 | 분당우리교회 | 70만 회 | 설교 | 인생을 낭비한 죄-이찬수 목사 |
| 8 | 윤정참조교회 | 69만 회 | 설교 | 일루미나티를 한국교회에 끌어드린... |
| 9 | 선한목자교회 | 55만 회 | 설교 | 조급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라-유기성 목사 |
| 10 | 베이직교회 | 51만 회 | 설교 |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다-조정민 목사 |

※출처 : 복음과 선교 제66집, '한국의 온라인 교회와 사역에 대한 선교학적 성찰'(홍영기) 논문, 2024.06.

*관련 기사 : 국민일보, '접속하라, 신앙 공동체가 되리니...분당우리교회 구독자수 1위, 2024.07.12.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20682008&code=23111111&sid1=mis>)

*2024년 5월 2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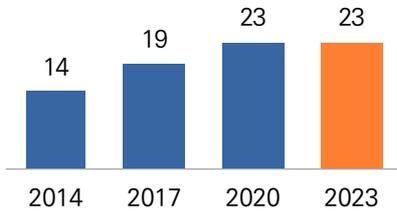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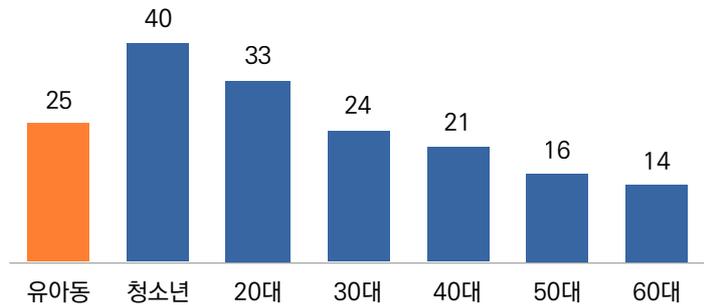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30대 이상 성인보다 많아

-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있는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말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3가지 요인(현저성, 조절실패, 문제적 결과)으로 구성된 척도를 통해 스마트폰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사용자군으로 유형화했는데, 이 중 고위험군과 잠재적위험군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으로 구분했다.
-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의 비율은 2023년 23%로 우리 국민 4명 중 1명꼴이었고, 10년 사이에 14%→23%로 크게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0대 청소년이 40%로 가장 높았다. 주목할 점은 유아동의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25%로 30대 이상 성인들보다 더 높았다.

[그림] 연도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중 추이 (일반 국민, %)



[그림] 연령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 (일반 국민, 2023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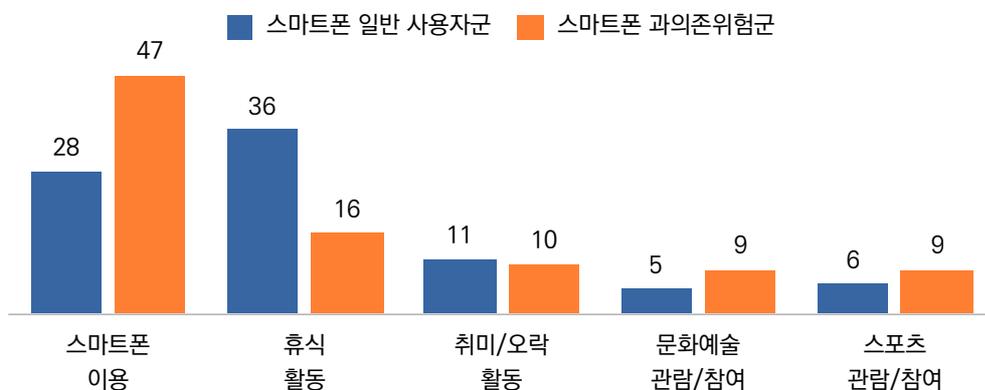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2023.12. (전국 10,000개 가구 내 만 3~69세 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스마트폰/인터넷 이용자 22,844명, 면접조사, 2023.09.~11.)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 :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패턴이 다른 행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의 여가활동, ‘스마트폰 이용’이 압도적!

-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의 여가활동을 일반 사용자군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일반 사용자군은 ‘휴식 활동(36%)’이 1순위인데 반해, 과의존위험군은 ‘스마트폰 이용’이 절반 가까이(47%) 차지했다. 과의존위험군에게 스마트폰은 일상이자 휴식인 셈이다.

[그림] 그룹별 현재 여가활동 (일반 국민,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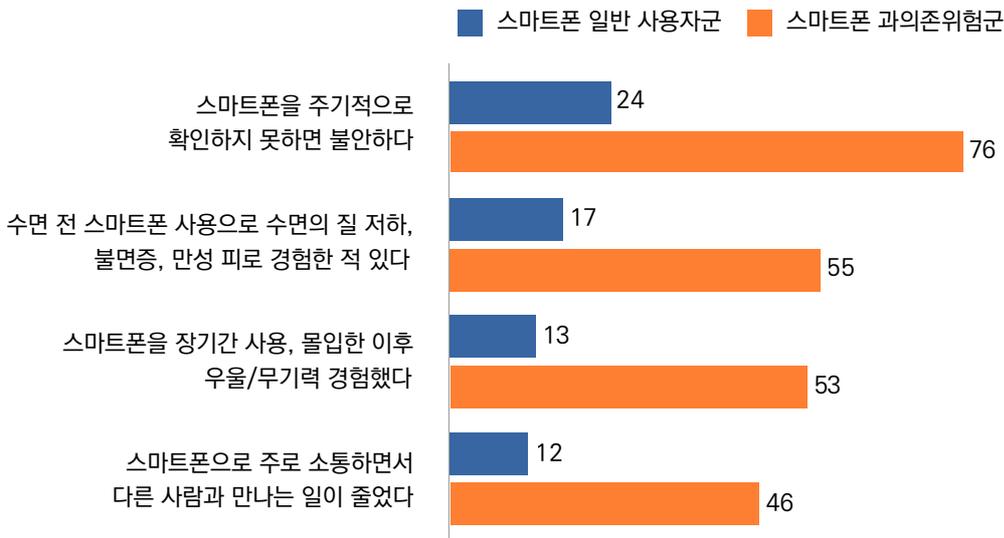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2023.12. (전국 10,000개 가구 내 만 3~69세 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스마트폰/인터넷 이용자 22,844명, 면접조사, 2023.09.~11.)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증세, ‘불안, 불면증, 만성 피로, 우울, 무기력’!

- 스마트폰 이용 시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심리 상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율을 물었다. 그 결과, ‘불안’을 경험한 과의존위험군은 76%로 일반 사용자군 대비 월등히 높았고, ‘수면의 질 저하/불면증/만성 피로’, ‘우울/무기력’을 경험한 비율도 일반 사용자군보다 3~4배 높았다. 또, ‘다른 사람과 만나는 일이 줄었다’에 일반 사용자군은 12%만 ‘그렇다’고 응답한 데 반해, 과의존위험군은 절반 가까이(46%)가 동의해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스마트폰 이용 관련 심리 경험 (일반 국민,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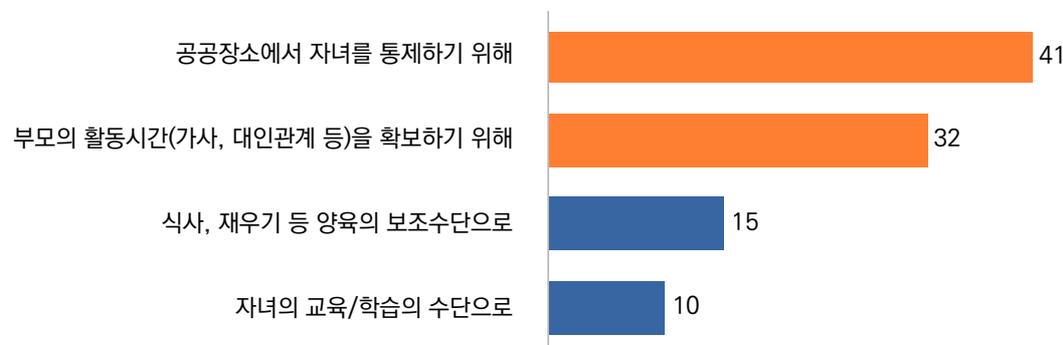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2023.12. (전국 10,000개 가구 내 만 3~69세 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스마트폰/인터넷 이용자 22,844명, 면접조사, 2023.09.~11.)

*4점 척도

10세 미만 자녀 부모, 공공장소에서 자녀 통제와 내 자유 위해 스마트폰 허용!

- 식당 같은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에 빠진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는지 유아동 자녀를 둔 부모에게 물었다. 그 결과, ‘공공장소에서 자녀를 통제하기 위해’가 41%로 가장 많았고, 2위가 ‘부모의 활동시간(가사, 대인관계 등)을 확보하기 위해’(32%)로 나타났다. ‘식사, 재우기 등 양육의 보조수단’이나 ‘자녀의 교육/학습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보다 어쩔 수 없이 허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그림]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상황 (만 3~9세 자녀 부모, 상위 4위,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2023.12. (전국 10,000개 가구 내 만 3~69세 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스마트폰/인터넷 이용자 22,844명, 면접조사, 2023.09.~11.)

스마트폰 과의존도 테스트

유아동용 척도(관찰자용)

| 요인 | 세부 내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조절실패 (역문항) | 1)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부모의 지도를 잘 따른다. | ① | ② | ③ | ④ |
| | 2) 정해진 이용 시간에 맞춰 스마트폰 이용을 잘 마무리 한다. | ① | ② | ③ | ④ |
| | 3) 이용중인 스마트폰을 빼앗지 않아도 스스로 그만둔다. | ① | ② | ③ | ④ |
| 현저성 | 4) 항상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한다. | ① | ② | ③ | ④ |
| | 5) 다른 어떤 것보다 스마트폰을 갖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 | ① | ② | ③ | ④ |
| | 6) 하루에도 수시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려 한다. | ① | ② | ③ | ④ |
| 문제적 결과 | 7)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아이와 자주 싸운다. | ① | ② | ③ | ④ |
| | 8) 스마트폰을 하느라 다른 놀이나 학습에 지장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 9)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시력이나 자세가 안 좋아진다. | ① | ② | ③ | ④ |

산출 방법

- 1)~3)번 문항은 역척도로 ①->4점, ②->3점, ③->2점, ④->1점으로, 그 외 문항은 번호 점수별로 총 점수 산출
- 28점 이상: 고위험군, 24~27점: 잠재적위험군, 23점 이하: 일반사용자군

청소년/성인/고령층 척도

| 요인 | 세부 내용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조절실패 | 1)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 ① | ② | ③ | ④ |
| | 2)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 ① | ② | ③ | ④ |
| | 3)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 ① | ② | ③ | ④ |
| 현저성 | 4)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 ① | ② | ③ | ④ |
| | 5)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 | 6)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 문제적 결과 | 7)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 8)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 9)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 혹은 동료,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 10) 스마트폰 때문에 업무(학업 혹은 직업 등)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산출 방법

- 번호 점수별로 총 점수 산출
- 청소년) 31점 이상: 고위험군, 23~30점: 잠재적위험군, 22점 이하: 일반사용자군
- 성인) 29점 이상: 고위험군, 24~28점: 잠재적위험군, 23점 이하: 일반사용자군
- 노인) 28점 이상: 고위험군, 24~27점: 잠재적위험군, 23점 이하: 일반사용자군

과의존위험군 유형 해석

- 고위험군 :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로 대인관계 갈등이나 일상의 역할 문제, 건강문제 등이 심각하게 발생한 상태
- 잠재적위험군 :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조절력이 약화된 상태로 대인관계 갈등이나 일상의 역할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단계
- 일반사용자군 : 스마트폰을 조절된 형태로 사용하는 형태

스마트쉼센터 스마트폰 과의존도 테스트 링크

<https://www.iapc.or.kr/kor/PBAS/diaSurvey.do?idx=9>

올림픽과 그리스도인

김희준 교수

세종대학교 겸임교수, 큐티엠 편집장, 한기윤연구위원

‘올림픽’, 이렇게 단어 하나만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감정적 연결과 울림을 줄 수 있는 단어가 얼마나 될까? 세상에는 여러 말과 단어가 존재하지만 이 한 단어만으로 사람들은 막연하지만 어떤 긍정적인 희망을 품거나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기대를 갖는 것 같다. 하지만 올림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9세기 말, 프랑스의 피에르 드 쿠베르탱(Pierre de Coubertin) 남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물론 위키피디아나 챗지피티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고 그것들이 일상의 대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조금 더 깊게 스포츠와 올림픽에 대해 알아봐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행사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 짧게나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올림픽과 스포츠를 이해할 수 있는지 신학적 접근을 해보려고 한다.

올림픽 기원과 역사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올림픽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원전 776년, 그리스의 올림피아에서 최초의 고대올림픽 경기가 열렸다고 전해진다. 올림픽 주기는 그리스 달력의 기준이었으며, 이는 현대 올림피아드를 세는 4년 주기와 매우 유사했다. 이 경기는 제우스 신을 기리는 종교 축제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들의 경기가 종교적, 사회적 의미뿐만 아니라 엄청난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고 여겼다. 그리스 도시국가 체제가 쇠퇴하기 전 절정기에는 오직 ‘그리스인들’(언어적, 종교적, 민족적 성향으로 정의됨)만이 참가할 수 있었다. 고대 올림픽은 그리스 도시 국가들간의 평화와 단결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에케케이리아(Ekecheiria)’라고 불리는 ‘신성한 휴전’이 선포되어 경기 기간 동안 모든 전쟁과 분쟁이 중지되었다. 이는 현대 올림픽이 추구하는 평화와 국제 협력의 정신과 맥을 같이 한다.

현대 올림픽

현대 올림픽의 부활은 19세기 말, 프랑스의 피에르 드 쿠베르탱 남작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고대 올림픽의 이상을 현대에 되살리고자 했으며, 1894년 국제올림픽 위원회(IOC)를 설립했다.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근대 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로 발전해왔다.

하지만 현대 올림픽은 고대 그리스의 믿음과 관행, 19세기의 정복적 기독교, 종교적 의식주의, 민족주의, 국제주의, 상업주의 등 다양한 철학을 담고 있다. 특히 사람들은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 이벤트를 정말로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평화적 행사로 생각하지만 쿠베르탱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그는 비유럽인들에 대해 스포츠를 문명화와 식민화의 도구로 명시적으로 받아들였다. 올림픽 경기를 부활시키려는 그의 계획은 당시 유행하던 고대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는 흐름과 잘 맞았고, 1896년 아테네에서 첫 근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무대가 마련되었다. 아프리카인들의 참여에 대해 쿠베르탱은 “스포츠가 아프리카를 정복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스포츠에 의한 식민화,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식민화”를 구상 했다고 볼 수 있다. 데이비드 카닌에 따르면 근대 올림픽이 명백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으며, 항상 국제 정세와 얽혀 있었다. 카닌은 1900년과 1904년과 같이 정치적으로 덜 관여한 올림픽이 가장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올림픽에서 정치와 스포츠가 항상 분리되어 있었다는 주장을 반박한다. (이하 생략)

*칼럼 전문은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koreanchristianethics.com/%EC%A0%80%EC%9E%A5%EC%86%8C/1955>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92호 \(2024년 7월 4주\)](#)

-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파리 올림픽 등

[전국지표조사\(주요 4개 조사기관\) 리포트 제127호 \(2024년 7월 4주\)](#)

- 국정운영 평가, 주변 5개국 호감도, 부동산 정책 평가 등

사회 일반

[환자 55%, '5분미만' 진료...평균 18분 기다렸다가 8분 진료받아](#)

연합뉴스_2024.07.24.

['앱은 쓸 줄 몰라'...퇴약별 아래 손짓으로 택시 잡는 노인들](#)

연합뉴스_2024.07.28.

[교대생 97% "서이초 이후 교직 불안감 커져"...63%는 "매우 불안"](#)

연합뉴스_2024.07.18.

[미성년자도 '주린이' 열풍..."가정·학교서 건전한 교육해야"](#)

연합뉴스_2024.07.27.

[작년 반려견·반려묘 27만마리 등록...329만마리로 늘어](#)

연합뉴스_2024.07.23.

[1200만원 vs 732만원...반려견 유치원보다 싼 대학등록금](#)

조선일보_2024.07.24.

[일찍 깬더니 '멍~'...저녁형 인간이 아침형보다 인지력 높다](#)

동아일보_2024.07.23.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 79%는 13살 이전에, 36%는 10살 이하](#)

한겨레_2024.07.21.

청년 · 청소년

["학폭 피해자 40%는 자살·자해 충동 경험...고통 최고치"](#)

연합뉴스_2024.07.24.

[키보드 셔틀부터 딥페이크까지... 신종 학폭 크게 늘었다](#)

국민일보_2024.07.23.

["코로나 종식 후 아동·청소년 행복 ↑...놀이시간은 회복 못해"](#)

연합뉴스_2024.07.25.

[스마트폰 중독도 대물림... 부모가 중독이면 자녀 79%가 중독](#)

조선일보_2024.07.29.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경제 · 기업

[외국 투자기업 53% "韓노동시장 경직적"...63%는 "노사 대립적"](#)

연합뉴스_2024.7.21.

[가계대출 억제에 '마통' 잔액 1兆 늘었다](#)

조선일보_2024.7.24.

[직장 폐업-정리하고 탓에... '비자발적 실업자' 124만명](#)

동아일보_2024.7.19.

[5년후 5060 은퇴 쓰나미 ... "3040 인력도 줄어 현장 노하우 끊길판"](#)

매일경제_2024.7.24.

[출산한 韓 여성, 둘 중 한 명은 일 그만둔다... "모성 페널티 여전"](#)

동아일보_2024.7.22.

[공사비 상승세 속 최저임금 1만원 돌파... "공사비·인력 수급에 악영향"](#)

조선일보_2024.7.24.

국제

["관계 단절로 의욕 잃어"... 日 도쿄 청년 고독사 3년간 742명](#)

조선일보_2024.7.22.

건강

[자전거·달리기 부상 절반이, 하루 중 '이때' 발생](#)

조선일보_2024.7.17.

기독교 · 종교

[성경이 藥... 꾸준히 읽으면 스트레스 수치 낮추고 정신건강 크게 개선](#)

국민일보_2024.7.24.

[\[단독\] 상반기 탈북민 고독사 작년 육박... 일대일 케어 나서야](#)

국민일보_2024.7.25.

[해외 선교사 2명 중 1명꼴 "전문 컨설팅 필요"](#)

국민일보_2024.7.26.

[음식·환대·교제가 있는 '맛있는 예배'](#)

국민일보_2024.7.29.

[교회로 불신자 초청않는 이유는... "초대할 만한 사람 없어서" 27%](#)

국민일보_2024.7.30.

후원

후원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 다일교회, 광주무돌교회, 광주벚엘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남서울 은혜교회, 노량진교회, 내동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춘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라이트하우스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범어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용산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름다운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이리신광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동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창일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한신교회(분당)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혜성감리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후원 기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연구소, AIB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한목회, (재)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광주지식포럼, CBMC여수비즈니스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후원 기업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메가리서치, (주)소프트자이온,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하은커넥터(주) (가나다 순)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후원 방법 (국내)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 후원 방법 (해외) <

외국에서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 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 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시니어 목회에 대한 조사 결과 및 대안 발표회

- 일시 : 2024년 7월 31일(수) 오후 2시~4시
- 장소 : 연동교회 가나의 집 4층 아가페홀
- 참여방법 : 신청링크나 QR코드를 통해 참가 신청서 제출
- 본 발표회는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됩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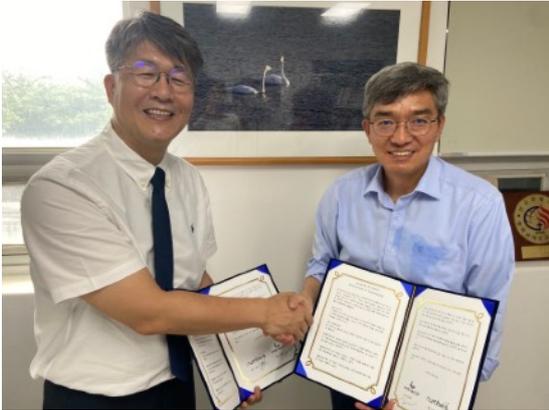
연구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연구소 휴간 안내〉

다음 주(8월 6일)는 여름휴가로 [넘버즈]를 한 주 쉽니다.

〈연구소 업무 협약(MOU)〉

우리 연구소는 지난 2024년 7월 25일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각각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기관 간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사역의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